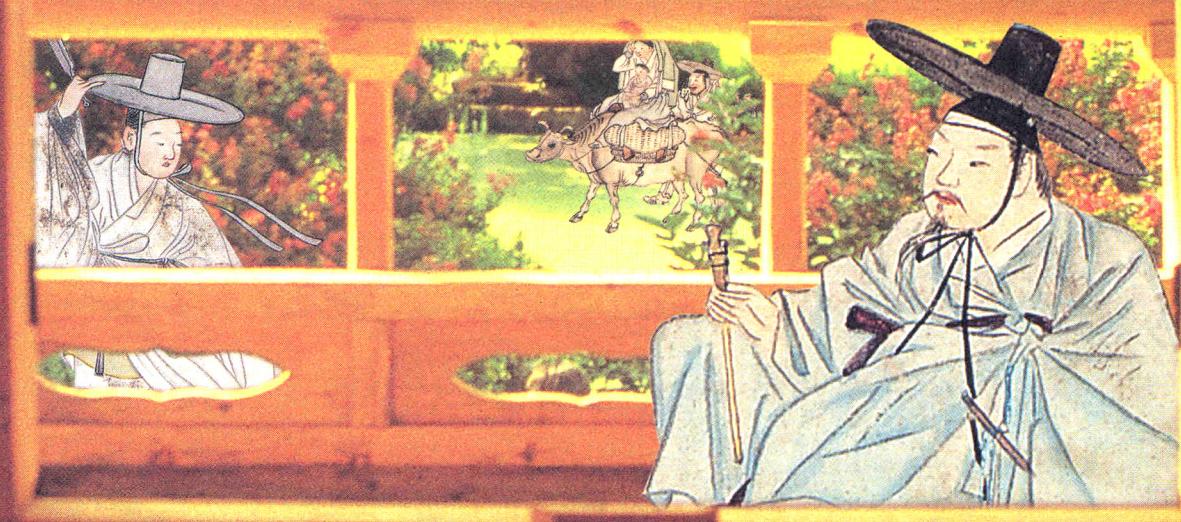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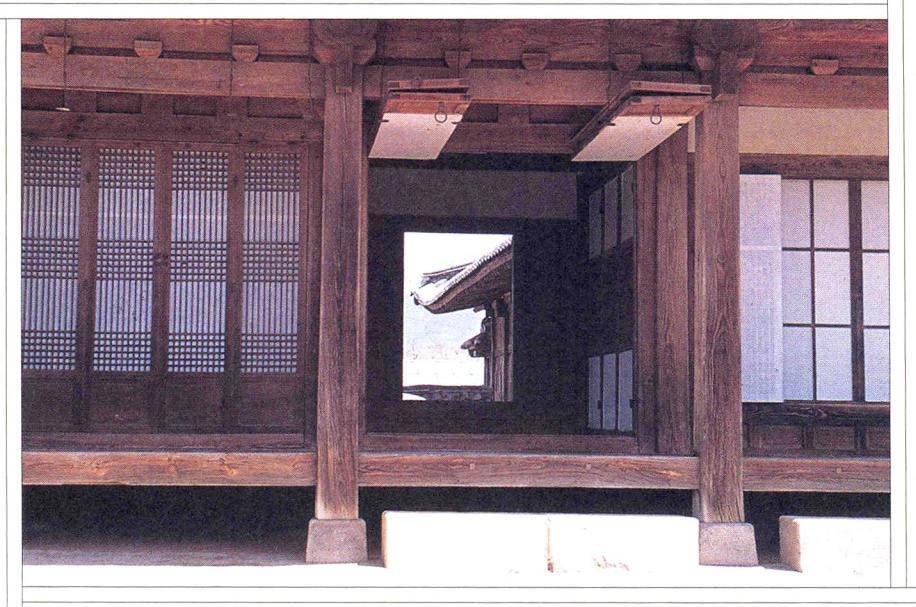


동아시아 주택의 빛과 창문

글 사진 한필원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ATA건축연구소





88 운강고택의 창문 왼쪽에서부터 떠살무늬 덧문, 들어열개문, 미당이창문이 나란히 보인다. 대청과 온돌방 사이에는 맹장지 봉합문이 비스듬히 보인다.

◀ 빛 그리고 창문

건축의 본질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졌던 건축가 루이스 칸(Louis Kahn)은 ‘자연광을 받지 못하는 공간은 진정한 의미의 공간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빛은 창문을 통하여 하루의 시간과 계절 분위기를 실내공간에 전해준다. 그리고, 우리는 창을 통해서 밖을 관찰하며,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거나 희망을 갖는다. 창은 안으로 빛을 전해주지만 밖으로는 집의 표정을 드러내준다. 이렇게 창은 집의 안과 밖을 소통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강원도 고성의 어명기 가옥 뒷방에는 창문이 없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곳이 과거 새댁의 방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웃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창문 하면 곧 유리를 떠올린다. 바로 유리창이다. 모래, 소다(soda), 석회 등 평범한 세 가지 재료가 열로 융합되면 견고하고 투명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BC 1,500년 이전, 중동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그 후 로마인들은 용융된 유리를 견고한 테이블에다 압연함으로써 평유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근대적인 판유리 기법은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개발되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투명하고 넓은 유리창의 역사는 150년도 채 안 되었으니 유리는 매우 새로운 건축재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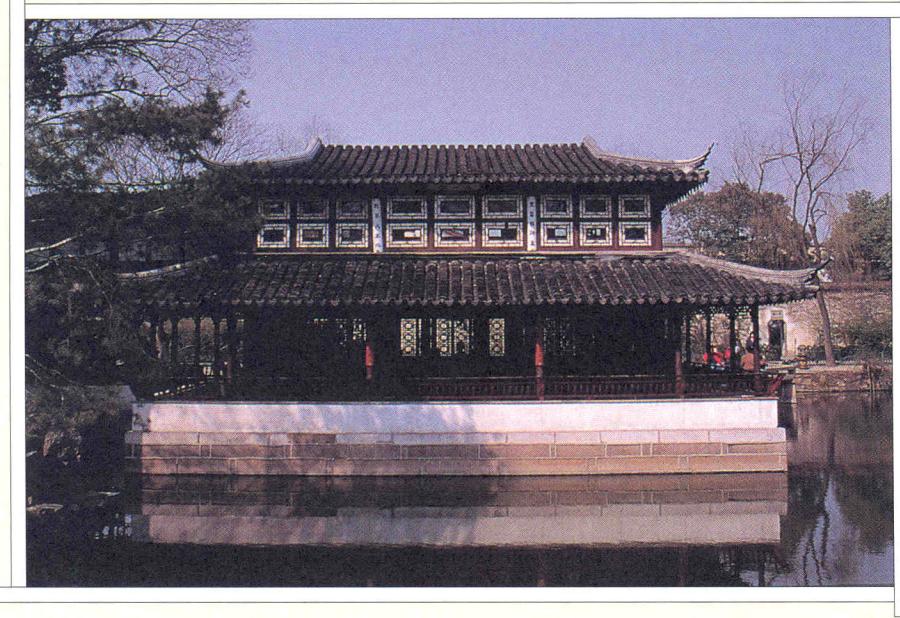
◀ 아파트의 창문

아파트 하면 창문이 생각날 정도로 아파트는 넓은 유리창문을 가진 방들로 구성된다. 특히 거실 앞면은 이른바 통창을 설치하여 시원스럽게 툭 트여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파트의 거실에서 팔베개를 하고 누워 달을 보거나 별을 볼 수 없다. 앞 동이 하늘을 가려서가 아니라 앞 동에서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파트의 너른 창문은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한다.

방들을 밀집하게 배열하다 보니 아파트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도 있다. 현관과 욕실이다. 앞서 언급한 루이스 칸에 따르면 자연광이 없는 공간은 죽은 공간이다. 집의 첫인상인 현관부터 죽은 공간이라면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가? 다행히도 최근에는 현관에 빛이 들어오도록 아파트 입구 부분이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하여 현관이 자연광을 받도록 하는 아이디어도 제시되고 있으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 동아시아 주택의 방안을 비추는 은은한 빛

일본의 국민작가로 불리는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는 <음예공간예찬>이라는 책에서, 그늘도 그림자도 아닌 거무스름한 빛을 ‘음예’라고 이름짓고 그것을 일본의 공간과 미학이 갖는 특성이라고 했다. 그 정도와 느낌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의 전통주택 실내를 비추는 것은 그렇게 은은한 빛이다. 햇빛은 직접 혹은 마당이나 마루에 반사된 후 창호



88 졸정원拙政園 중국 소주 졸정원의 건물에 사용된 조개껍질 창문

지를 통해서 실내로 들어온다. 강한 빛이라도 창호지를 통해서 확산되니 방안에서는 은은하게 느껴진다. 동아시아의 주거공간에서는 너무 밝고 트인 것을 허(虛)하다 하여 괴하였다. 대신에 아늑한 느낌을 중요시했던 것이다.

밤이 되면 사정이 바뀐다. 방안의 어스름한 불빛과 함께 그림자가 창호지를 통해서 밖으로 새어나온다. 이렇게 창호지 창문을 통해서 방 안팎의 동정이 낮과 밤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달된다. 그래서 동아시아 전통주택에서는, 직사광선을 피하느라 낮에 블라인드를 치고, 앤이 훤히 들여다보일까봐 밤에는 커튼을 쳐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었다. 어렸을 때 어머니와 창문에 창호지를 바르면서 손잡이 부근에 단풍잎을 하나 넣고 한 겹 더 발라 장식을 했던 추억이 있다. 겨울 맞을 채비로 조금 두툼한 새 창호지를 바르고 나면 마음까지도 푸근해졌다. 실제로 창호지는 생각보다 보온성능이 좋다. 그뿐 아니라 창호지는 숨을 쉰다. 그래서 창호지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바람이 통하고 습도가 조절된다. 이것이 유리와 창호지의 다른 점이다. 그런 창호지 덕분에 우리는 한옥 방에서 매우 쾌적한 느낌을 갖게 된다.

세 나라의 차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세 나라 중에서 창문 시스템이 독특한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만은 유독 창호지를 방의 바깥쪽에 붙인다. 창살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아서인지 일본의 창살은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 매우 단순하고 간결하다.

우리 한옥이나 중국 주택에서는 창호지를 방 안쪽에 붙여서 밖에서 보면 집의 입면이 선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창살은 매우 중요한 디자인 요소였다. 창살을 상하, 좌우로 보내어 평면구성 하듯이 열십자형으로 창문을 나눈 창살을 띠살무늬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창살무늬이다. 그 밖에도 빗살무늬, 완자무늬, 만자무늬, 꽃살무늬 등 창살의 무늬가 수십 종에 이른다. 중국주택의 창살은 그 혼란함과 세밀함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 유기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정밀조각을 하듯 만든 창살을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일본 주택의 창문에는 ‘아마도(雨戶)’라고 하는 미닫이형 판문을 달는 것이 독특하다. 아마도는 비바람을 막기 위한 덧문인데 그것을 닫으면 빛이 차단된다. 필자가 처음 일본에 갔을 때 아마도를 닫은 줄 모르고 자다가 아침에 깨어보니 해가 중천에 떠있어 당황했던 적이 있다.

한옥에서는 대청과 같이 바닥이 마루로 된 방의 창에는 판자를 댄 판장문을 덧문으로 달고, 온돌방의 창에는 대개 띠살문을 덧문으로 설치한다. 여닫이 덧문을 활짝 열면 양쪽의 기둥에 딱 맞아 들어가 한옥은 덧문을 열고 닫을 때 서로 다른 얼굴을 갖게 된다.



❸ 일본 니시카와西川주택의 창문과 실내의 음색 다다미에 어스름한 빛, 곧 음색이 비추어 진다. 창문에는 창호지를 바깥쪽에 풀여서 방안으로 창살이 드러난다.

두 얼굴의 집이다. 한옥의 창문은 여닫이 띠살문과 미닫이 창문이 기본이지만, 안쪽으로 맹장지형의 갑창을 달기도 한다. 맹장지란 문짝의 앞뒤를 벽지로 싸 바른 것을 말한다. 창문의 가장 안쪽에 갑창을 설치하는 것은 바깥 바람과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갑창과 미닫이창 사이에 지금의 방충망 같은 것을 달기도 하는데 이를 사창이라고 한다. 사창에는 창호지 대신에 올이 굽은 비단을 붙인다. 이렇게 네 겹으로 창을 구성하면 한옥의 창으로는 가장 격식을 갖춘 것이 된다.

▣ 다양한 아이디어

한옥의 창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봉창(封窓)은 벽에 고정된 창이고, 살창은 창호지를 바르지 않고 살대만 설치되어 통풍이 중시되는 부엌이나 창고 등에 주로 설치된다. 한옥에서는 방의 쓰임새를 고려하여 창의 종류와 크기 그리고 위치가 정해졌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서로 다른 창들이 조화를 이루며 변화있는 입면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는 창호지를 바른 창문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근대 이후에 주택의 창문에 유리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졸정원(拙政園) 등 소주(蘇州)의 아름다운 정원에 있는 몇몇 옛 건물들에는 조개껍질을 켜서 이어 만든 너른 반투명 창이 설치되어 있다. 유리가 도입되기 이전에 좀더 내구성이 있는 창문재료로 조개껍질을 사용한 것인데, 독특한 실내 분위기를 자아낸다.

한옥에서는 창문이 벽이 되기도 천장이 되기도 한다. 경북 김천의 원터마을에 있는 방초정이라는 아름다운 정자에는 가운데에 온돌방이 있는데, 이 방을 만들어주는 벽은 달리 보면 창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름철의 낮에는 들어올려져서 누마루의 천장이 되기도 한다. 불발기창도 매우 재미있는 창이다. 대청과 온돌방 사이에는 맹장지 분합문을 설치하는데, 이 분합문에 낸 사각형, 육각형, 혹은 팔각형의 작은 창을 불발기창이라 한다. 창 속의 창인 셈이다. 불발기창은 대개 애은 사람 눈높이 정도에 설치되어서 온돌방에 앉으면 대청을 통해서 은은한 빛이 불발기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아시아의 사람들은 창호지를 고쳐 바르면서 창문을 깨끗하게 유지해 왔다. 주택의 창문은 세상을 보는 마음의 창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방안에서 시계가 없어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밖에 바람이 부는지 눈이 내리는지 알 수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창호지에 비추어졌기 때문이다.